

믿음으로 찾은 행복

주부신행담

①

싸늘한 밤기운이 벼속까지 스며들었다. 옷 벗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켜 안고 몸을 비벼대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으르렁거리는 듯이 소리를 삼켜버렸다. 채구 작은 법당은 어둠으로 뒤덮여 음침스런 모습이었다. 신발도 신는중 마는중 정신없이 뛰쳐 나온 내모습도 서서히 어둠에 묻히기 시작했다.

10여년전 남편은 믿음직한 모습에 건실한 직장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굳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되어 남편은 영화속의 연인처럼 서울로 훌쩍 떠나 버렸다. 느닷없이 마음기술을 배운다며 아내와 자식, 처가식구들의 인류를 뿌리치고는 자신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누구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나는 1년후 데리러 온다는 그의 마지막 말을 위안 삼아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친정에서는 이혼하려며 성화가 대단했다. 아버지는 애초에 반대했던 결혼을 하더니 그렇게 웬대며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과시하려는듯 나를 다그치셨다.

그러나 점차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었다. 담장 아이와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위대했기 때문이었다. 사할수록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나도 아내 내 삶의 방식식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존재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야채장사, 생선장사 등 온갖 고생을 하며 남편의 약속을 믿고 생활을 이어갔다. 허허하루가 할었다. 그런데 남편은 1년후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잊기라도 한듯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내 인내도 한계에 부딪혔을인지 도저히 못살겠다는 생각이 온통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엔 고강 강제를 등지고 서울로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찾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남편은 서울 명동에서 자그마한 마음실을 꾸려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번 데리러면 빠져드는 남편의 고집이 비록 작지만 이렇



얼마동안은 경전을 속속하거나 법문 테이프를 듣는 내 모습에 대해 남편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만 몰두할뿐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남편은 '남편의 행동을 재촉삼아 더욱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겠다'던 내 인내에 한계를 느끼게 해준 참지못할 모욕을 안겨줬다.

"다 집어치워!" 지금까지 나를 무시해오던 남편이 별다른 말도 없이 금강경이며 천수경이며 내가 아끼는 불경들을 방바닥으로 쾅쳐냈다. 나즈막이

뿌리 뽑힌 내 자아를 마음 기술이 치료 할 수는 없었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자성이 온종일 환영처럼 뛰뛰뛰했고,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동네어귀의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내 초발심은 진지했고 끈질겼다.

남편은 자기만의 삶을 살며 이방인 대하듯...

도로 마음실을 운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또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매일같이 하는 마음실 청소만이 내기 여가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런 나에 대해 남편은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무관심하기만 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도 그렇지만 청소를 소일하는 내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돌과구를 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에 대한 가난한 절규에 불과했다.

한동안을 곱씹 생각한 끝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 마음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기술이 뿌리 뽑힌 내 자아를 치료할 수는 없었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자성이 온종일 환영처럼 뛰뛰뛰고,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동네어귀의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불교에 대해 무지했던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과 만나게 된 동기였다. 그러나 내 초발심은 생각보다 진지했고 끈질겼다. 뜬눈을 대로 암자를 찾는 것은 물론이었고 집에서 절전을 모셔놓고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내가 왜 절을 찾게 되었는지 내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고 시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외삼촌 집에서 자랐고 더군나 이전까지 불교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던 나였기에 더더욱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뒷날에 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건 인연이었다. 그것도 아주 두꺼운 바늘로 이어 놓은 무진전래의 불연(佛緣)이었다.

틀리던 스님 법문 테이프도 목소리를 감추었고 영주알도 제 짝을 찾느라 여지기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허탈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향했던 나의 사랑이 오히려 초라했다. 법당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려나 지난 시절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가 처놓은 울타리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며 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어차피 살아온 세월, 이것을 못참겠는가' 또다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았다. 한 걸음 가까워지는 믿음이 용솨를쳤다. '그래! 내게 또 하나의 일이 주어졌 셈이다. 남편도 부처님 법을 알 수 있게 해주자.'

이화지 (서울 종로구 홍지동)

이러후 건강칼럼

< 12 >

마음

건강증

지난해의 걸작 해외보좌를 발표한 A.P.통신의 여러토피 가운데 아기를 가계에 두고 나온 한 도둑의 이야기가 백미를 이룬다. 내용인즉 이렇다. 네덜란드의 벨로라라는 마을에서 한 남자가 아가에게 재물을 가져가게 충치러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기저귀를 슬쩍 들고 나오는에는 성공했으나 장작 아기는 유모차에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들렸다는 이야기다. 건강증 치고는 대단한 건강증이다. 요즈음 틀어 췌장이 되면서 자신의 기억력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실감은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리게 아닌가 하고 내심 불안해 하는데 중년들의 모임에선 말간 최건 이 건강증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다.



란의 주관적인 느낌과 그 개인이 부여한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기질적인 건강증은 뇌의 손상 정도에 비례하여 기억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다르다.

이 두 기억상실을 구분하자면 다음 몇가지를 염두에 두면 된다. 기질적인 기억장애는 서서히 진행된다. 그리고 원인은 신체적인 질병이 반드시 있다. 주로 자극을 받은 내용을

뇌손상·심리적 충격이 주원인

사고 등으로 뇌를 다치게 되면 건강증이 일어날 수 있다. 성인 병도 원인이 된다. 기형 고혈압으로 인한 뇌동맥경화증이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건강증은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뇌는 뇌는 아무런 병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충격에 의하여 건강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마음의 충격은 객관적으로 크고 작고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충격을 경험하는 사

본 사람도 기억을 보존하지 못하니 누구시더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해 마음의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심리적인 사건이 선형한다. 견디기 힘든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기억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무의식적인 도피로 일어난다. 계기가 있어 회복되려면 급작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기질적인 것은 회복이 안되거나 된다 해도 아주 서서히 이루어진다.

"There are six perils of associating with evil friends: any gambler, any libertine, any tippler, any cheat, any swindler, any man of violence becomes his friend and companion."

while all that he should do remains undone, he makes no money, and such wealth as he has dwindles away.

"Four persons should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friends: the rapacious person; the man who pays lip-service only to friend; the flatterer; the wastrel."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⑥
먼저 아무 일도 않는다. 그는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원상대인 한 그는 돈을 벌지 못하고 그가 지냈던 부는 차츰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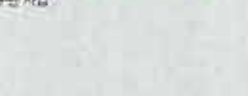
네 종류의 사람이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즉 탐욕스런 이, 친구에게 입에 달린 말만 하는 이, 아첨꾼, 부랑아. 'libertine' 난봉꾼, 방탕한 사람. 'tippler' 술을 상습적으로 마시는 사람, 술고래. 'swindler' 사기꾼, 협박꾼. 'wastrel' 방탕자, 부랑아. (박미영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삼성전관을 아시면 세계 1위 기업을 알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 경쟁시대 —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선두에 우뚝 선



세계 일류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컬러 브라운관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관. 어려운 기술환경속에서도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삼성전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최초 바이오브라운관과 와이드 TV용 초평면 브라운관 개발, 차세대 영상기기의 주역이 될 HD TV 브라운관 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기업들과 영상기술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관 — 말레이시아, 독일 등 해외공장의 성공적 운영과 멕시코공장 진출로 세계화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이룩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기업. 세계속의 초일류기업 —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